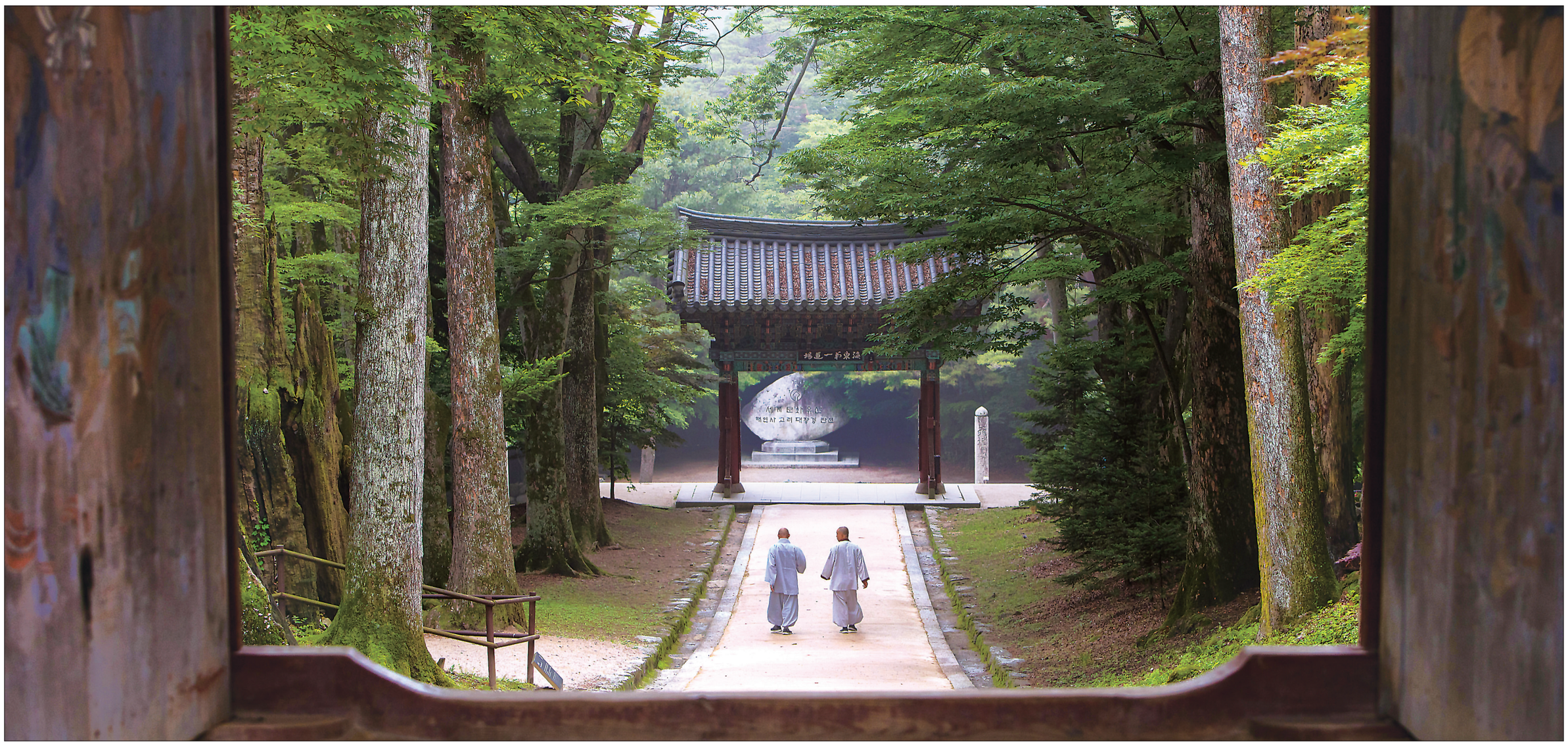
“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31
창간 31주년
1994~2025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0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15일(음력 8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산문 밖, 새 시대로 나아가다

문이 열리면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31년 전 창간의 문을 연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라는 새 길을 걸어왔다. AI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멈춤 없이 이어지는 그 길 위에서, 불교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하지권 작가

본지 홈페이지 개편
언론윤리강령 제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독자 친화적인 뉴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언론윤리강령과 게시판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는 기사 제목과 사진 노출도를 강화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 주요 코너인 와이드 인터뷰 ‘화엄만다라’와 필진들의 ‘테마연재’를 상단에 배치해 다양한 읽을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는 기사 노출량을 늘이고 화면 구성을 단순화해, 불교계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은 AI시대에 필요한 ‘디지털·영상콘텐츠 윤리’ 항목을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적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SNS를 아우르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게시판 운영 원칙을 개정함으로써 자비와 상생의 정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언론의 신뢰성과 윤리를 강화하고, 독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불교언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본지 임은호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우수상 수상

임은호 현대불교신문 기자〈사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불교의 모습을 조명한 기획 보도 ‘無장애 불교’로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언론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無장애 불교’는 사찰이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불편하다는 인식을 낮추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소개했다. 또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모범 사찰을 조명하고, 이웃 종교 사례와 비교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상세히 보도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한
‘無장애 불교’ 주제
오는 11월 12일 시상식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일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린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에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5년 9월 2일까지 발표된 방송·신문·뉴미디어 분야 총 54편이 접수됐다. 운영위원장 덕안 스님(총무원 미디어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와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부산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5부작 ‘한국인의 수행법, 간화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방송부문에는 KBS 다큐온의 ‘봉녕사 수행일기’가, 라디오부문에는 MBC의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님과 함께 영혼의 바캉스 특집’이, 언론보도부문에는 BTN의 BTN뉴스 기획보도 ‘명상, 이젠 알고 하자’가, 뉴미디어부문에는 유튜브 마음 울리는 선율과 지혜의 ‘천수경 뮤직비디오’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임은호 기자의 ‘無장애 불교’를 비롯해 우수상 3편과 특별상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언론인상은 류지호 (주)불광미디어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제3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 6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창간 31주년 특집호
A·B섹션 44면 발행

창간특집
특별대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A4



AI&미래불교 B1 · 2 · 3 · 5 · 6 · 7 · 10 · 11



기획특집
한마음과학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A13
명상 국제컨퍼런스 A18 · 19
화엄만다라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 A11

현대불교신문 캠페인 | ‘불교’로 답해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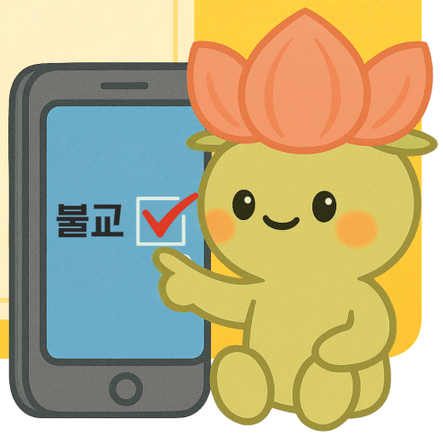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문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조사 예정)

향후 10년간 한국 종교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종교’ 문항 조사! 신자들의 적극적인 응답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사찰이 없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불교’ 신자임을 알려주세요!